

국가예산 확보 위한 협치 시동

익산시·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정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다짐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은다.

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정치권과 익산시가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당·정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기재부 대응 활동에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익산시는 이 자리에서 부처예산안에 일부·미반영된 국가예산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업은 △소상

공인연수원 건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금강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 둘레길 조성 등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당·정 간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익산시가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와 정

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회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춘석·한병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별도로 만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를 이어갔다. 국비 반영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정치권 공조와 중앙부처 방문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소년무상교통사업 순항

청소년·운수사도 win-win·탄소 배출 저감 효과

군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이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고등학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통한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청소년 단체가 직접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업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는 지속적인 사업발전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2월에 개최된 무상교통 홈페이지 시연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홈페이지 가입, 교통카드 등록, 교통 이용 내역, 지원금 지급 등 홈페이지 전반적인 환경 설명 등을 청취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6월 4일에는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주관하는 달그락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서흥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무상교통사업을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대중교통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무상카드 사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이 증대되고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익숙해지면 에너지·환경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을 통한 운수사들의 운송 수입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인 2023년도 1~5월 운수사업의 운송 수입은 38.6억이었지만 시행 후인 2024년도 1~5월 운송 수입은 약 41억원으로 2.4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차후에도 간담회, 무상교통사업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내달부터 연중운영 왕궁 '스마트도서관' 개관

익산시 왕궁면에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시는 7월 1일부터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기기 내에 비치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다.

왕궁 스마트도서관은 인기 대출도서와 신간 도서 등 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익산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3권의 도서를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매일 도서가 교체돼 다양한 책을 쉽고 편하게 빌려볼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 대출 이벤트는 2일부터 7일까지 도서를 대여한 이용자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스마트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한 후 영수증을 응모함에 넣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100년 된 금고에 추억 저장해봐" ... 숨리문화금고 '활짝'

근대역사 간직한 익산금융조합 건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얼굴 찍힌 나만의 지폐 만들기 · 금융 공부 · 인화동 변천사 기획전시

익산시 인화동 골목에 '숨리문화금고'가 문을 열었다. 1920년대 지어진 옛 익산금융조합 건물을 보수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다.

100년 된 건물의 외관은 묵은 때를 벗고 밝은 옥색으로 새 옷을 입었다. 실내는 건축 당시 유행했던 근대 건축의 전형적 모습과 현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금융'을 주제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내부 체임프 스탬프 투어 용지는 통장이다. 관람객은 통장 형태의 스탬프 투어 종이를 입장할 때 챙긴 뒤 가지고 다니다 체임프 구역마다 비치된 도장을 찍으면 된다.

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금융에 대해 간단히 공부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추억에 잠겨볼 수



있는 전시도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숨리문화금고는 옛 금융기관 건물이 간직한 역사성을 적극 활용했다. 상시전시실과 체임프 공간에는 △금융 미디어 창구 △시간이 보관된 금고 △MR체험(매지월)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얼굴이 찍힌 백 원짜리 지폐를 인쇄해보는 나만의 지폐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숨리문화금고는 익산금융조합 건물뿐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협립양산 현대식 건물까지 일체형으로 재구성해 공간을 확장했다.

확장된 공간 2층에서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시 '숨리 그리고 인화'를 즐길 수 있다.

전시에는 100년 전 익산금융조합이 숨리문화금고로 바뀌는 동안 조금씩 모습을 바꿔가며 자리를 지켜온 인화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숨리문화금고는 실제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옛날 돈이나 통장, 월급 명세서, 자라며 들고 본 경험 등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이에 인화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든 그림 영상과 책도 전시돼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강임준 시장, 재난대비시설·건설사업현장 등 안전점검

최근 이상기후로 잦은 집중호우와 여름철 3대 자연재난이라 할 수 있는 산사태·침수 피해·하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군산시가 전격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재난대비 시설과 재해복구 사업장 및 건설사업 현장 등 재해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강시장은 군산시 주요 재난대비 시설인 경포천 배수펌프장과 경포 배수갑문의 작동상태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황청취 및 점검을 실시했다. 시설을 살펴본 뒤엔 집중호우시 즉각적으로 펌프장을 가동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당부했다.

강시장은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기에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상황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의



대비 체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해복구사업장 및 건설사업 현장 등 재해취약지역,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배수현황 및 현장관리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현장담당자에게 철저한 현장관리를 해달라고 격려했다.

강시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군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2024년도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입학식

국립군산대학교는 26일 해양과학대학 1호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8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국립군산대학교가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리더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리더십, 비즈니스 마케팅, 기업이정, 정부시책, 및 재무관리 등의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교과목 위주로 편성이 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101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김 양식업, 어선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20명의 수산경영인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나운동과 산북동을 잇는 터널 공사 본격 추진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구간

군산시는 산북동 산북중학교와 나운동 부곡사거리를 연결하는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의 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공사비

194억원을 들여 진행된다. 군산시는 터널구간은 270m, 도로 연장 1km로 공사하며 터널 내 2차로와 인도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점부인 1공구(산북중학교~현충로)는 2023년 2월 공사를 시작하여 산북중학교 방면부터 토공 작업을 통해 비탈면 안정화 등 터널 굴착 작업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본격적인 터널 공사 추진에 앞서 터널 굴진 시험 발파를 통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건물에 대한 소음 및 진동 계속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터널 굴진 발파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실시하며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